

박두진 시의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 경 복**

차 례

1. 서론	3. 타락한 사회현실 비판과 신성 사회
2. 제국주의 현실 비판과 하나님	구현의식
나라 추구의식	1) 불의한 정치 현실과 타락한 인간
1)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사회비판
악마적 현실 비판	2) 민주공화국 건설과 절대
2) 하나님 나라 구축과 기독교적	신국(神國) 추구의식
구원의식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박두진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을 연구한 논문이다. 그렇기에 이 논문은 반영론적 관점에다 작가의 의식을 주목하는 표현론적 관점을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다.

유토피아 사상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하는 의식의 형태를 띤다. 기독교의 메시아의식은 바로 이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과 매우 상통하므로

* 이 연구 결과물은 2023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경남대학교 교수

한국 근현대 비극적인 역사를 겪은 박두진은 기독교 신앙인이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으로 당대 현실에 대응한 시작을 하고 있다.

박두진의 작품의 특성을 시기적으로 요약하면 먼저, 일제 강점기의 시들은 현실의 부정성을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현실을 ‘처참한 밤’, ‘황폐한 땅’ 등의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침략자를 ‘뱀’ 등의 악한 짐승의 이미지로 우의화하여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회상은 이사의 천국 이미지를 빌려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청산’의 이미지로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시기는 일제의 힘이 너무나 강고하기에 신의 섭리와 심판에 의해 진행되는 유토피아 사회상을 그려 보여주는 점이 강하나 밑바탕엔 당대 사회의 모순을 인간들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둘째, 해방 후 4·19혁명 시대, 6, 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들은 당대 사회의 부정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함을 보여준다. 4·19혁명 시기의 시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악’, ‘사회악’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비판하였고,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자유가 억압된 모습을 ‘식민지 노예’, ‘봉쇄의 입’, ‘묶인 자유’ 등의 이미지로 제시하여 당대 현실 사회의 억압적 현실의 문제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대응한 유토피아 사회상의 모습으로 4·19혁명과 관련된 시에서는 당시 민중에 의해 선취될 ‘절대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는데, 절대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에 따라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신국의 이미지가 배어들어 있어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을 보여준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 대응한 유토피아 사회상의 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제시됨으로써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띤 채 인간의 노력에 의해 건설될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박두진 시의 유토피아 의식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부정성에 통렬한 비판의식을 전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을 기독교적 메시아 사상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두진은 기독교 유토피아 의식을 자신의 삶과 세계에 견지하고 있으나 당대 현실에 대한 인간의 참여와 노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에 건설될 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을 그의 생애 내내 추구하였다.

주제어 : 박두진, 유토피아, 메시아사상, 하나님 나라,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 대안적 사회상

1. 서론

박두진은 일제 강점기, 혼란한 해방정국,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 쿠데타, 유신독재 등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을 겪으며 시를 썼다. 한국 근현대역사의 증인이라 할 만한 시인이다. 이러한 박두진 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현론을 비롯한 반영론, 효용론, 구조론 등 여러 방면에서 그의 시적 특성과 가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두진 시 연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시인이 지향하고, 시의 전편에 일관되고 흐르고 있는 것을 해명하는 일이다. 그의 시적 삶과 대응한 본질적인 시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연구자가 보았을 때 그것은 박두진의 시적 세계가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되게 보이고, 그 가운데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여 이상적 사회상을 추구하는 것을 주제로 보여주는 점이라 할 것이다. 즉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박두진의 시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방법론 측면에서 말하면 반영론적 관점에서 그 당대에 작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창작에 임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일이 되겠다.

그런데 박두진의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박두진 시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청록파>와의 관련 속에서 그의 시적 특성을 규명하거나¹⁾, 그의 주요 시적 상징이 되는 ‘자연’과 ‘해’를 중심으로 시적 의미를 밝히거나²⁾, 그의 생애와 관련된 기독교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데³⁾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시에 나타난 현실 의식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는데⁴⁾, 그것들은 한국전쟁기부터 1960년대의 박두진 시를 주로 다루어 박두진 시의 현실 의식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두진 시 고찰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의식과 지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것도 특히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수행한 논문이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그나마 다음 두 편의 논문이 유토피아 관점에서 박두진 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관점의 적용과 시 해석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

먼저, 박이도는 “박두진에게 있어서 시의 존재 이유는 정신적인 욕구

- 1) 최승호,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한국시학연구』 2, 한국시학회, 1999, 291-337쪽; 김승희, 「청록집과 탈식민화의 저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12, 159-186쪽; 김진희, 「청록집에 나타난 ‘자연’과 정전화 과정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10, 7-41쪽.
- 2)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백승란, 「박두진의 초기시 연구」, 『비평문학』 22, 한국비평문학학회, 2006.5, 7-35쪽; 손진은, 「청록집과 박두진의 시」, 『국제언어문학』 14, 국제언어문학학회, 2006.12, 245-258쪽; 조동구, 「박두진 시의 구성 원리와 변모 양상」, 『문예운동』, 2015.9, 72-86쪽.
- 3) 유성호, 「윤리와 실존으로서의 종교의식」, 『현대문학의 연구』 3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2, 97-122쪽; 권성훈, 「한국 기독교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 『종교연구』 66, 한국종교학회, 2012.3, 221-248쪽.
- 4) 김응교, 「시적 현실주의의 강화: 1950년대 박두진 시」, 한국문학연구회,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지윤, 「박두진 전후 시의 시간성과 현실 인식」, 『한국시학회 제37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시학회, 2016.5.21.

와 유토피아의 파악이다. 그는 자연을 예찬하며 생명 현상으로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 자연 속에서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이며 종교적인 이데아의 추구가 드러난다.”⁵⁾ 박이도는 박두진 시의 특질을 유토피아 추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연과 종교적 특성이 결합된 이상향, 즉 낙원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적 경향을 해명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적 사회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사상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곽효환은 『청록집』에 실린 청록파 세 시인의 시에 나타난 자연 현상을 두고 유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라는 해석을 전제한 뒤 박두진의 자연에 대해서는 “화해와 상생의 기독교적 이상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⁶⁾ 이런 해석은 박두진 초기 시에 한정된 주목인 데다, 유토피아 사상에 입각한 적용이 아니라 자연과 관련된 이상 공간, 이상향이라는 용어를 씌으로써 자연이 만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대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대안적 사회상으로 작동하는 유토피아 사상의 취지까지 그 해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격적인 관점에서 박두진 시의 유토피아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박두진의 시를 왜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해명의 실마리는 우선, 작가의 창작의식에서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박두진은 자신의 시작 경험에 대해 “1939년 전후에 처음 시를 발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의 시대적, 민족적 현실에서 내 시 작품의 대부분은 정치, 사회, 시대, 민족적 현실과 그 충격, 거기에 미치는 고민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것이었다.”⁷⁾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시를 ‘민족의 역사적 현실에

5)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종로서적, 1987, 139쪽.

6) 곽효환, 「『청록집』에 나타난 이상공간 연구」, 『한국 근대문학연구』 34, 한국 근대문학회, 2016, 129-133쪽.

7) 박두진, 「무명과 유명 사이」,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25쪽.

대응한 사상과 사색의 고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점은 그의 시적 특성을 언급하게 될 때 반영론적 관점의 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그의 시는 역사적 현실에 대해 늘 반응하고 있고, 일제 시대처럼 언론 탄압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 표현으로 그 시대 현실을 담아내는 부분이 있긴 하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를 두고 신동욱도 “이 시인의 작품세계는 늘 현실과 밀착되어 있으며, 조국의 앞날을 전망하면서 현실을 광정(匡正)하는 사명감이 우세하게 나타나 있다.”⁸⁾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박두진은 그것이 기독교적 사상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적 사회상, 즉 유토피아 추구의식을 늘 시적 태도에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결국 내게 있어서의 시의 욕구나 그 실현은 적어도 정신적, 정서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늘 하나의 갈망 상태, 불균형 상태, 모순 갈등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극복 초극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라고 하여 모순적 현실에 대한 극복에 그의 시적 지향이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추구이건, 도저한 윤리의식이나 소명감이건, 시인은 어떤 완벽한 이상과 꿈, 다함 없는 천상의 것에 대한 동경과 그 지상적, 현세적인 실현을 위해서 그 작업과 생애의 진실을 다해야 할 것만은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¹⁰⁾라고 말함으로써 시인의 역할로서 ‘완벽한 이상과 꿈, 천상의 것에 대한 동경과 그 지상적 실현’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이상 사회를 지상에 건설해야 된다는 기독교 유토피아주의자들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단순히 신에 의해 주어지는 종교적 낙원이 아니라 천국에 등가되는 이상 사회를 지상(地上)에 현

8) 신동욱, 『해와 삶의 原理』,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280쪽.

9) 박두진,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17쪽.

10) 박두진, 『시인의 윤리』,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33쪽.

세적인 형태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박두진 시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 있더라도 현실 속의 구체적 유토피아 사회상을 추구하는 유토피아 사상의 표출로 볼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무엇이며, 박두진에게 그 유토피아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일까? 유토피아 이론가들에 따르면 먼저 “유토피아는 —만약 인간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실제 주어져 있는 것’을 반박하고 수정한다.”¹¹⁾ 이는 유토피아가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 기획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때 유토피아는 부정의 부정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의 정신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유토피아는 ‘경향성(Tendenz)’이요 ‘잠재성(Latenz)’으로 존재한다.¹²⁾ 경향성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인식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을 지칭한다면, 잠재성이란 전체적 세상의 변화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객관적 현실 변화의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른바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와 직결된다.

그에 따라 유토피아는 과거의 낙원이나 황금시대에 대한 회상과 기억, 그리고 현재의 근원적인 조건의 한계의식과 이를 극복하는 미래의 완전한 사회의 가능성과 상상적 관계에 의해서 현재의 내재된 주요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¹³⁾ 폴락은 “유토피아는 인간의 존엄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¹⁴⁾면서 존엄을 성취하는 힘의 근간에 유토피아가 있음을 지적한다.

박두진은 이러한 유토피아 사상의 내용과 흐름을 그의 기독교 사상에

11) 에른스트 블로흐, 박철호 옮김, 『희망의 원리』, 숲, 1993, 323쪽.

12) 박철호, 「블로흐 사상의 이해를 위해」,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 337쪽.

13)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87쪽.

14) 라이먼 타워 사전트,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문학동네, 2018, 190쪽.

기반하여 그의 시적 생애 내내 견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박두진 연구자는 “박두진 시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양측은 원형적인 동일성 회복을 지향하는 메시아 관념과 사회와 민족에 대한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실천적 의지인 것이다.”¹⁵⁾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박두진 시가 얼마나 강렬하고 필연적으로 유토피아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기독교 사상과 유토피아 사상의 결합은 매우 자연스럽다. 기독교 유토피아 사상가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유토피아는 동일하지 않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존하여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상적 세계를 제시하고 이를 역사적 기획으로 바꾸는 구체적 실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토피아적’ 특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¹⁶⁾고 말한다. 곧 기독교 유토피아 의식은 피조물의 고난과 신음을 보면서 메시아의 구원받은 세계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의식을 말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유에의 갈망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사상의 흐름과 동궐을 보인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 말씀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등과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러나 예수와 함께 약속되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미리 경험되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토피아 정신 내지 유토피아 의식은 기독교 신앙 속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다림”¹⁷⁾이라는 기독교 사상 연구자의 말은 당연한 논리를 지닌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토피아 의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경과 기다

15) 유시욱, 「두 가지 성취욕의 궤적」, 박철희 편, 『박두진』, 서강대 출판부, 1996, 124쪽.

16)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앞의 책, 96쪽.

17)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1쪽.

림과 희망인 동시에 그것을 향한 자기 부정과 변화 개혁을 요구하는 인간의 의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차원에서 “유토피아 의식은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인 동시에 그것을 앞당겨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의 미리 맛봄이요 그것의 도래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토피아 의식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의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현존하는 것에 대한 모순¹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 셈이다.

박두진은 이런 기독교 사상에 기반하여 인류애적 차원의 유토피아 의식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유토피아는 가족을 넘어 인류적 차원의 사랑을 하는 것을 유토피아 의식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유토피아 사회는 사랑의 사회이자 구원의 사회이다. 그리하여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드는 더 나은 사회질서는 유토피아의 전형²⁰⁾이 된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박애주의를 잘 표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두진 시 연구에 유토피아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하에 박두진 시의 전반에 나타난 역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사회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해방 전, 해방 후의 현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국주의 현실 비판과 하나님 나라 추구의식

1)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악마적 현실 비판

박두진은 1939년 『문장』지에 정지용으로부터 「향현(香峴)」, 「묘지송

18)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6쪽.

19)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망, 2012, 36-80쪽.

20) 라이먼 타워 사전트,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문학동네, 2018, 191쪽.

(墓地頌)」등을 추천받고 이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했다. 등단할 무렵은 일제 말기 암흑기로 불리는 시절로 일제가 한민족 말살 정책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한민족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만행이 극에 이르는 시기인 만큼 박두진 시의 내용도 당대 현실에 대한 매우 비판적 형상을 띠게 됨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음 두 편의 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내게로 오너라. 어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 불이 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푸른 동산, 난만한 꽃밭이 타고, 이웃들은,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 울며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이리들이 으르댄다. 양 떼가 무절린다. 이리들이 으르대며, 이리가 이리로 더붙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 뚫다. 피가 흐른다. 서로 죽이며 자꾸 서로 죽는다. 이리는 이리로 더붙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더붙어 멀하리라.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 - 별들이 남아 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돈는다. 어서 오너라.…… 황폐한 땅을 새로 파 이루고, 너는 나와 씨앗을 뿌리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

- 「푸른 하늘 아래」, (『해』, 1949) 부분²¹⁾

까치독사
늦여름 한낮
돌사다 갈포데기 밑에
까치독사,

무서운 간악을 꾸미고 있도다.
이렇게 맑은 날
갈포데시 밑에서
배암은

21)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71-72쪽.

<중략>

사탄의 후예(後裔)
사탄의 후예(後裔)여
나는
아담의 후예(後裔)로다

너의 살점은
왜가리나
산까치가 와
파먹어라

사탄을
죽이고

느러진 사탄을
백일(白日)아래
내버리고

- 「배암」, (『청록집』 시대 미수록시), 부분²²⁾

이 두 편의 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쓰여진 작품들이다. 그것도 암흑기라 불리는 1940년대에 들어와 창작된 것으로 언론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당시 일제하 현실의 부정성을 상징과 암시로 표현하고 있다. 먼저 『문장』지에 추천 형식으로 발표된 「푸른 하늘 아래」는 일제 군국주의 침략이 얼마나 당시 한민족을 박해하고, 피폐한 현실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일제를 ‘이리’로, 우리 민족을 ‘양 떼’로 우의화하여 처참한 착취와 탄압을 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즉 “그리운 집들이 타고”,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 울며 흩어졌”으며, “피가

22)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2』, 범조사, 1982, 231-232쪽.

호르”며, “서로 죽이며 자꾸 서로 죽는” 암담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를 한마디로 줄여 “치참한 밤”과 “황폐한 땅”이라고 규정한다. 인간의 상식 측면에서나 종교의 율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상과 도의가 사라진 시대, 온갖 악행이 판치는 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에 따른 한민족 말살 정책이 어떻게 당대 현실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침탈과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시적 표현이다.

이러한 현실의 부정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토피아 의식의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유토피아 의식은 이상사회를 표상하는 까닭에 당위의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써 현실에 대한 제도적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1941년 창작된 「배암」이라는 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시도 언론 검열을 의식해서 일제를 “까치독사”로 우의화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사탄의 후예(後裔)”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당대 현실에 끼치는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와 억압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악마인 사탄의 행위와 다름 아니란 인식의 표출이다. 이런 악에 대해 시인은 “사탄을/ 죽이고”라는 극단적 저항의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매우 강렬한 비판의식을 표출한다.

위 시 이외에도 일제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묘지송(墓地謠)」에서는 ‘북망(北邙)’과 ‘무덤’, ‘주검’이라는 이미지²⁴⁾로 상징화하고 있고, 역시 1941년 작으로 나오는 「산(山)과 산(山)을 일으키며」에서는 “불의의 치욕(恥辱)을 당하였노라”와 “나의 조상들을 무찔른/ 나는 그 원수들을 아노라”²⁵⁾라는 말을 통해 치욕의 감정과 원수의 제시로 당대 현실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 시인 역시 이러한 악마적 현실에 대해 “일본의 무력약탈주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당시의 우리

23)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11-30쪽.

24)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28쪽.

25)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2』, 범조사, 1982, 229-230쪽.

들, 아니 당시의 나는 기독교적 박애주의, 그리스도적인 이상적 세계주의로써 비판하려 했다. 그러한 그때의 약소민족적 울분과 고민과 비애를 오직 기독교적인 세계주의에 의해서 극복하려 했었다.”²⁶⁾고 밝히고 있다. 이 언급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촉발하여 기독교적 이상세계를 염원하게 되었다는 말로서, 곧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의 측면에서 당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일제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은 그의 시에서 당대 사회현실을 ‘겨울’이나 ‘밤’에 빗댄다든지, ‘이리’나 ‘독사’로 상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파괴’나 ‘죽음’ 등의 공포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 검열과 민족 말살 정책의 탄압에 따른 공포심리가 이와 같은 상징적 표현을 유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내면화가 진행되어 기독교적 차원의 상징으로 당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박두진 초기 시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우의적 표현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상징으로 당대 현실에 대한 우회적 풍자의 성격을 지니며, 그 본질은 당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서 유토피아 사상의 표출인 셈이다.

그렇게 본다면 초기 시에 많이 보이는 자연의 이미지도 당대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과 개입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인 자연을 등장시켜 당대 현실과의 대조와 반증을 통해 억압적이고 모순적인 제국주의 현실의 부정성을 인식하는 의식, 즉 당대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유식도 박두진 시의 특징을 “자연에 의탁하여 자연의 존재를 빌어 현실문제와 사회문제를 터치한 것”이라면서 “현실에 뿌리를 둔 혁명적이고 민족적 시인”²⁷⁾이라고 평한 것이 그런 관점에 선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두진 시의 초기 시에 나타난 현실 의식의 시는 기독교적 유토피

26) 박두진, 「초기시의 저변」, 『시적 변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217쪽.

27) 이유식, 「박두진론」, 『현대문학』, 1965. 11.

아 의식을 전제로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관점에 따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하나님 나라 구축과 기독교적 구원의식

박두진의 태도로 볼 때, 일제 말기 주어진 악마적 민족 현실은 신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그 자체에 있어서 이미 메시아적 역사의식이요 메시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의식을 그 골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유토피아 의식을 결여한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있을 수 없다.”²⁸⁾는 것이 기독교 사상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두진 역시 이와 같은 역사관의 내용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다. 박두진은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소향(蘇香) 형(兄). 머지않아 참말로 머지않아 주는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 참말로 평화한 나라, 그 젖과 꿀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²⁹⁾라고 밝히고 있다. 1942년에 쓴 이 글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적 역사의식에 맞게 주의 재림에 의한 ‘참말로 평화한 나라, 그 젖과 꿀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박두진의 믿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미래에 달성되리라는 시간적 유토피아 양상에다 ‘나라’라는 말에 함축된 공간적 유토피아 의식까지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 박두진은 일제 말에 대응한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회상을 구체적 현실 속에 이루어지길 염원하는 시적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다음 두 편의 시가 그런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여

28)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0쪽.

29) 박두진, 「편지」, 1942. 11. 19. 낮. 김용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36쪽에서 재인용.

주는 작품들이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업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향현(香峴)」(『해』, 1949) 부분³⁰⁾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땀아, 사슴을 땀아,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땀아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칩범을 땀아 칩범을 땀아 칩범을 만나면 칩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해」(『해』, 1949) 부분³¹⁾

위 두 편의 시에서 간취되는 유토피아 사회상은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모두에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문장』지 추천작으로 알려
진 「향현(香峴)」을 통해 보면, 그것은 시간적 축의 면에서는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업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과 “핏
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칩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로 나타난다. 화염이 솟구치고 모든 짐승들이 함께

30)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38쪽.

31)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26-27쪽.

즐거이 뛰는 날을 주가 지상에 다시 재림하는 이상적 시간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상적 시간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모순이 일거에 불태워지고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적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으로 본다. 곧 이 시에서는 ‘산’으로 표상된 공간이 기독교적 이상 공간으로 제시됨으로써 유토피아적 사회상을 달성해내고 있다. 그 점에서 박두진 시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현실로 볼 때 미래적 시간 속에 선회되는 유토피아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상아탑』에 발표된 「해」도 시 내용의 해석에서는 마찬가지로 의미를 떼다.³²⁾ 여기서도 시간적 축에서 “고운 해야. 너가 오면”이란 가정적 미래를 전제로 하여 공간적 유토피아 축인 “청산”을 말하고 있다. 이때 ‘해의 출현’은 「향현」에서 보이는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과 대응하고, ‘청산’은 ‘산’과 대응한다. 「해」에서 보이는 유토피아적 사회상은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에서 볼 수 있듯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은 날을 누리”는 양상을 떼다. 이는 착취와 차별이 사라진 사회, 침탈과 모순이 사라진 사회의 이미지다. 비록 짐승으로 우의화되었지만 모든 인간과 존재들이 평등하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표상해내고 있다.

박두진의 이런 유토피아적 사회상은 그의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 사회상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 낙원 이미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즉 위 두 시

32) 「해」는 언제 창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946년 5월 『상아탑』 6호에 발표되었기에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적 경향이나 내용상의 특징으로 볼 때 일제 강점에 대한 저항과 극복으로 ‘해’의 출현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박두진은 특히 해방 전에 쓴 작품 위주로 삼인시집 『청록집』(1946)을 묶었는데, 여기에 「해」가 포함되고 있음을 두고 볼 때 일제 강점기 시의 범주에 넣어 분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공간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의 구절을 살펴보면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³³⁾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이나 존재를 뛰어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절대적 평화와 안식을 주는 이상적 사회상의 이미지다.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신에 의해 주어지는 낙원의 이미지가 깃들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면적 해석이다. 시인 스스로 “나의 경우 처음 <향현>의 세계는, 자연을 소재로 한 윤리적 진실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이상주의와, 종교적 사랑, 평화의 이상 추구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드러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적 침략주의, 식민지 착취 내지는 영토 확장의 강국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갈구하는 시적 윤리로 제시한 것이었다.”³⁴⁾라고 말한 언급을 두고 볼 때 인간의 실질적 노력에 해당하는 ‘윤리적 진실의 추구’라는 구절이나 ‘정치적 이상주의의 추구’라는 표현에 담긴 인간적 노력의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교적 유토피아 사회상을 단순한 낙원의 이미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의 박두진 산문에서 보았듯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상적 사회상을 지상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유토피아 사상의 표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Vittorio Lanternari가 “메시아운동은 특히 식민지의 억압적 상황에서 이를 의식

33) 성서원 편집부, 『베스트 성경』, 성서원, 2025, 981-982쪽.

34) 박두진, 『암흑 수난기의 시적 대응』,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62-63쪽.

한 억압받는 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변혁을 시도하는 종교운동이다.”³⁵⁾라고 말한 것처럼 박두진 또한 심리적 차원에서 당대 억압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제 나름의 메시아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두진 시의 유토피아적 이미지에 대한 해석에서 “산과 해가 어우러지는 그의 시작은 약육강식이나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 낙원을 갈구하거나 메시아의 구원을 열망하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시적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중략> 특히 부활과 연결되는 태양의 이미지는 천상적인 것을 표방하는 빛의 상관물로서 신성의 시공을 열망하는 시인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³⁶⁾라고 분석하거나, “박두진의 자연은 현실적 좌절을 대립명제로 하고 있다. 헤산은 기독교적 신념에 의해 이데아의 세계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그가 노래한 자연 표상으로서의 산은 현실의 모든 불화와 갈등이 해소되는 화해와 조화로움의 장소로 의미를 확대, 심화한다.”³⁷⁾라는 언급은 대체적인 정황 분석의 내용으로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이상 사회 추구라는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상의 정신을 충분히 해명해내지 못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박두진이 스스로 ‘해’의 이미지에 대해 “나의 궁극적인 이상, 민족의 이상, 인류의 이상의 궁극상을 하나의 비원으로서, 하나의 열원으로서 최대한의 보편화, 최대한의 영원화, 최대한의 시형상화를 도모해 본 것이다”³⁸⁾라고 밝힌 바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메시아의 재림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의 구체화로서 당대 참혹한 현실에서 가장 내면적 치열성을 담보한 유토피아 사상의 실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35) 임희모,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 메시아운동」,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365-366쪽에서 재인용.

36) 임영주, 앞의 책, 73쪽.

37) 임영주, 앞의 책, 70쪽.

38)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2, 385-386쪽.

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희망은 하나님의 근원적 행동에 대한 인식과 이 행동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온다³⁹⁾는 것을 박두진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표된 다른 시, 가령 “언제 이런 설악(雪岳)까지 원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으로 화창(和暢)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설악부(雪岳賦)』, 『해』, 1949)⁴⁰⁾라는 표현도 이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박철희가 “그의 초기 시가 과거-미래는 긍정적으로, 현재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결국 어둠에서 밝음을 기다리는 자세는 기독교적 신앙의 표상”⁴¹⁾이란 언급은 그런대로 종교적 관점의 일리 있는 해석이다. 박두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신앙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율법이 명령하는 바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으며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요 희망⁴²⁾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점은 박두진 시의 특징이 되는 밤에 대한 부정과 빛의 세계로의 추구와도 관련된다. 실제 유토피아 사상에 따르면 “유토피아 사회상은 암담한 밤의 현실에 대하여 찬란한 빛의 세계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피억압자들이 사라지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른바 찬란한 인간 삶이 지배하는 빛의 나라를 그린 셈이다.”⁴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박두진 시의 특질에 바로 여기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9) G. 프리드리히,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 G. 프리드리히/H. 쾰/김균진, 『유토피아니즘과 기독교』, 종로서적, 1986, 24쪽.

40) 박두진,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51쪽.

41) 박철희, 『박두진론』,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3, 134쪽.

42)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0쪽.

43) 에른스트 블로흐, 박철호 옮김, 『희망의 원리』, 숲, 1993, 30쪽.

3. 타락한 사회현실 비판과 신성 사회 구현의식

1) 불의한 정치 현실과 타락한 인간 사회비판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을 가지게 된 박두진은 해방을 맞고 한민족 독립 국가가 건설되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구현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분단과 6·25전쟁, 4·19 혁명,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 등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거치면서 일제하 비참한 현실 못지않게 타락한 현실을 목도하게 됨으로써 여전히 선지자적 시선으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의 노력에 의해 구축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게 된다. 이는 기독교 사상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셈이다.

박두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토피아 추구는 자신의 진정한 본래적 존재가 되려고 비(非)본래적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존재양식의 모순을 직시하게 되는 실존적 차원의 일⁴⁴⁾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방 이후 남한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조리하고 불의한 역사 현실을 냉엄한 목소리로 비판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세 편의 시가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또 보았다.
그날,
그 오래, 오천년(五千年), 오백년(五百年), 십이년(十二年)을 켜어 온,
민족악(民族惡), 정치악(政治惡), 사회악(社會惡), 인간악(人間惡)의,
불순(不純)한 피,
그 혁명(革命)에의 불살음의 번개같은 돌진(突進)을.
죽음에의 행진(行進)을.

- 「우리는 보았다」(『거미와 성좌(星座)』, 1962) 부분⁴⁵⁾

44)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앞의 책, 107-108쪽.

45)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2』, 범조사, 1982, 96쪽.

피빛 놀이 일제히 타오르더라.
꽃밭을 와 돼지 떼가 낭자 하더라.
절벽 아랫 파도 떼가 노해 있더라.
귀신 들려 돼지 떼가 처박히더라.
바닷가는 식민지(植民地) 노예(奴隸) 매매(賣買)하더라.
해적(海賊) 떼의 취(醉)한 총(銃)이 지랄 치더라.
깁깁대며 잔내비 떼가 춤을 추더라.
휘감기는 뱀의 떼가 비늘 곱더라.
백성들의 서러운 목젖 앞에는,
문드러져 씹어가는 이국종(異國種) 육류(肉類).
피로 사는 얼룩 무늬 거짓 여신(女神)의
경련(痙攣)하는 위벽(胃壁) 속에 불이나 활활 불어라.

- 「신고사(新古事)」(『하얀 날개』, 1967) 전문⁴⁶⁾

달밤에 홀로
칼을 간다.

저렇게 틀어막힌 봉쇄의 입,
저렇게 틀어막힌
절벽의 귀,
저렇게 캄캄하게 눈 칭칭 가리운 채

묶여서 투하되는 대낮의 자유,

- 「36, 검법」(『포옹무한(抱擁無限)』, 1980) 부분⁴⁷⁾

세 편의 시를 살펴볼 때, 「우리는 보았다」는 50년대 이승만 부정부패 독재사회로부터 촉발된 4·19혁명 시대를, 「신고사(新古事)」는 5·16군사 쿠데타 이후의 혼란한 60년대 박정희 군부 시대를, 「36, 검법」은 박정희

46)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3』, 범조사, 1983, 80쪽.

47)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6』, 범조사, 1984, 198-199쪽.

군부가 더욱 악랄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한 70년대 유신체제 시대를 배경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두 당대의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한 사람이자 양심 있는 한 지식인의 입장에서 엄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는 보았다」를 살펴보면 시적 화자의 눈으로 볼 때 당대의 사회현실은 “오천년(五千年), 오백년(五百年), 십이년(十二年)을 켜온, / 민족악(民族惡), 정치악(政治惡), 사회악(社會惡), 인간악(人間惡)의, / 불순(不純)한 피,”로 가득 차 있다. 일제의 그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에 따라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고 있는 이승만 독재정부의 행태에 대해 매우 실망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준엄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들은 기독교적 사상의 관점을 더욱 확연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서, 누천년 이어온 인간의 여러 악을 당대 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벗어날 길 없는 원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씻어내야 한다는 선지자적 태도의 표출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거미와 성좌(星座)』 시집 서문에서 “시로써 그것과 대결하고 시로써 그것을 초극해 온 내 스스로의 역정을 나는 지극히 다행하고 대견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시인이 한 말은 지식인의 양심에 연유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적 신앙인의 참된 자세 발현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악의 행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간취된다. 그에 따라 박두진의 비판의식에 대해 “『거미와 성좌』에서 현대라는 인간 사회악의 비리인 탈출, 유배, 음모, 간음, 황홀, 육즙, 교살 등을 ‘거미’로 구상화하여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모든 반항과 대결의식은 바로 기독교적 염원과 사랑의 절대적인 호소이기도 하다.”⁴⁸⁾라고 지적하고 있는 한 연구자의 말은 이 경우 매우

48) 박정례, 「박두진 시의 종교성에 대하여」, 『어문연구』 6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0, 298쪽.

적절하다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의식, 다시 말해 대결의식이 나올 수 있는 밑바탕에는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상이 박두진의 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것이다.

「신고사(新古事)」 역시 60년대 역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면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닷가는 식민지(植民地) 노예(奴隸) 매매(賣買)하더라./ 해적(海賊) 떼의 취(醉)한 총(銃)이 지랄 치더라.”라는 부정적 현실 진단에다 ‘돼지 떼’, ‘잔내비 떼’, ‘뱀 떼’라는 온갖 타락한 짐승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당대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권이나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 횡행하는 것은 온갖 물신주의, 쾌락주의, 외세주의 등이 악마적 형상으로 판을 치고 있다는 냉소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것 또한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한 현실을 준엄한 목소리로 심판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악행으로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목소리가 내려진 것처럼 말이다.

박두진이 당대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는 데에는 기독교의 메시아적 역사의식 곧 유토피아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은 인간의 모든 현실의 불의와 비본래성에 대한 인식을 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진다. 다시 말한다면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은 현존하는 세계의 죄악과 이로 말미암은 인간의 고난, 다시 말하여 억압과 착취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질병과 모든 종류의 인간적 차별, 인간의 자기 팽창욕으로 말미암은 자연 세계의 오염과 파괴에 대한 인식”⁴⁹⁾이라는 점에서 6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의 현실을 불의와 타락이 넘치는 사회로 진단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36, 검법」의 해석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이 시는 유신 독재체제의 부정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암울한 유신헌법으로 인해 당시의 국

49)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4쪽.

민들은 “저렇게 틀어막힌 봉쇄의 입/ 저렇게 틀어막힌/ 절벽의 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마침내 “뭍어서 투하되는 대낮의 자유”라는 불의하고 악마적 현실에 대한 참담한 분노와 저항감을 표현한다. 기독교적 양심을 가진 박두진의 입장으로 볼 때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시에서도 “늦여름 햇살은 눈부시고/ 어디에도 하얀 침묵/ 대낮 깔리고/ 예 저기 빼격이며 철문 닫히는 소리/ 순수가 그 발목이는/ 쇠사슬 소리.”(「소리」, 『고산식물』, 1973)⁵⁰⁾라는 표현을 통해 유신 독재체제의 암울함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식의 표출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이 여전히 발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 실제 박두진은 1974년 유신정권에 항거하고자 소설가 이문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101인 선언」에 참여한다.⁵¹⁾ 행동적 지식인이자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그의 생애적 활동 면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과거는 내가 그 가치의 기준을 정치, 사회, 민족, 시대적인 어떤 개혁, 외형, 제도적, 물질적인 데 두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때그때의 민족적, 사회적, 시대적, 인류적인 사실에서 보는 인간악, 사회악, 모든 비진리 반인간, 반도덕적인 악들의, 그 근원을 깊이 뚫어 보고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이었다.”⁵²⁾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메시아 의식, 즉 기독교 유토피아 의식의 소유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 유토피아 의식의 보유자로서 당대 사회현실의 부정성에 엄정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50)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3』, 범조사, 1983, 220-221쪽.

51) 김웅교, 앞의 책, 49쪽.

52) 박두진, 「무명과 유명 사이」, 『박두진 문학 정신 7』, 신원문화사, 1996, 25쪽.

2) 민주공화국 건설과 절대 신국(神國) 추구의식

이러한 비판적 인식하에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극복할 대안적 사회상을 박두진은 자신의 시에서 형상화한다.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회상을 제 나름의 사상에 기반하여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다. 블로흐에 의하면 구체적인 유토피아는 역사의 운동 속에 담겨 있는, 인간 삶에 관한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⁵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응한 유토피아 사회상을 박두진은 다음 시편들을 통해 제시한다.

우리들의 이루려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절대공화국(絶代共和國).

철저한 민주정체(民主政體).
철저한 사상(思想)의 자유(自由),
철저한 경제균등(經濟均等),
철저한 인권평등(人權平等)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祖國)의 승리(勝利),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地上)에서의 승리(勝利),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자유(自由), 평등(平等), 인간애(人間愛)의 승리(勝利)인,
인민(人民)들의 승리(勝利)인,
우리들의 혁명(革命)을 전취(戰取)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기쁨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불길,
우리들의 전진(前進)을 멈출 수가 없다.

53) 김의수, 「서양 현대철학에서 유토피아 논쟁과 미래사회」,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200쪽.

혁명(革命)이어!

- 「우리들의 기빨을 내린 것이 아니다」
(『거미와 성좌(星座)』, 1962) 부분⁵⁴⁾

깃발을 내려서는 안되리.
창들이 찢러오고
조룡들 덮쳐오고
절망을 패배를 분노를 던고 섰던
당신의 골고다의
뜨거운 깃폭
깃발을 내려서는 안되리.
이미 올려졌던 우리들의 깃폭
이미 내리워진 우리들의
깃폭을
바람이 불어와도 치울리고
짐승떼 몰려와도 치울리고
하늘땅 뒤바뀌어도 치울려
덧덮여 짓눌리는 오늘의 어둠
어둠의 그 중심에
기 다시 꽃아
깃발을 내려서는 안되리.
불을 질르면서 가야 하리.

- 「사도행전(使徒行傳) 12」(『사도행전(使徒行傳)』, 1973) 부분⁵⁵⁾

무지개 칭칭 감고
번쩍이는 발 밑에 훌훌 이는 구름
금빛 유량한 울음 소리
열 겹 하늘 흔든다.

54)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2』, 범조사, 1982, 98-102쪽.

55) 박두진, 『박두진전집 7』, 범조사, 1983, 250-252쪽.

새벽이 밤을
빛이 그 어둠을 밝고 오는
오대주 일제히 푸른 산이 일어서고,
바다들이 회디 하얀 깃발 새로 든다.

아, 준비하게 쓰러졌던 자유들이 일어서고
푸득푸득 잣더미에서 이념의 새 날아나고
눈물과 피
불안과 증오
그 절망도 죽음도 다 죽음 속에 장사하고
유량히 쏟아지는 하늘 나라 말씀
하늘과 땅 일제히 사랑의 냇 탄다.

- 「천마(天馬)」(『별과 조개』, 1982) 전문⁵⁶⁾

위 세 편의 시는 그 당대 모순에 대응하여 박두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한 작품들이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구체적 유토피아 사회상이 그려져 있다. 그 점에서 박두진의 시는 단순히 신에 의해 주어지는 낙원 추구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인간이 지상에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천적 기독교 유토피아 사상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들의 기쁨을 내린 것이 아니다」의 작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시는 4·19혁명이 달성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그 혁명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무엇보다 박두진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철저한 민주정체(民主政體)/ 철저한 사상(思想)의 자유(自由)/ 철저한 경제균등(經濟均等)/ 철저한 인권평등(人權平等)”의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은 “절대공화국(絶代共和國).”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유토피아의 성격을 띤다. 곧 완전한 자유와 평등

56) 박두진, 『박두진전집 7』, 범조사, 1983, 86-87쪽.

이 보장된 신성 사회의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의(正義), 인도(人道), 자유(自由), 평등(平等), 인간애(人間愛)의 승리(勝利)인/ 인민(人民)들의 승리(勝利)”로 구현되는 ‘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역사 현실 속에 실현되는 구체적 유토피아, 곧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탄생에 등가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시기 쓴 「시인공화국(詩人共和國)」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시인공화국(詩人共和國)」 역시 “절대의 평화(平和), 절대의 평등(平等)/ 절대의 자유(自由)와 절대의 사랑.”이 달성된 나라로 표현된다. ‘절대’가 가지는 의미를 두고 볼 때, 이 공화국은 신성 사회, 즉 ‘신국(神國)’의 색채가 짙다. 다만 이 공화국을 건설하는 시인을 그는 “아 현실(現實) 일체(一切)의 구속(拘束)에서/ 날아나며 날아나며 자유(自由)하고자 하는/ 시인(詩人)은/ 영원(永遠)한 한 부족(部族)의 아나키스트들이다.”(「시인공화국(詩人共和國)」, 『거미와 성좌(星座)』, 1962)⁵⁷⁾로 설정함으로써 역사적 현실 속의 부패와 구속을 거부하는 자유적 사회주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 현실 속에 구현되는 종교적 사회주의 국가의 한 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나키즘 사상 자체가 일체의 권위와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반항하는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이다.⁵⁸⁾ 그만큼 역사 현실 속의 이상적 사회상 건설에 관심을 두었다고 볼 있다.

이런 관점은 「사도행전(使徒行傳) 12」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시는 인간적 노력의 유토피아 사회 추구가 예수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을 강조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절망을 패배를 분노를 딛고 섰던/ 당신의 골고다의/ 뜨거운 고통”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적 순교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쟁, 다시 말해 “바람

57) 박두진, 『박두진전집 시 2』, 범조사, 1982, 155-160쪽.

58)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 옮김,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72, 11쪽.

다니엘 게랭, 하기락 옮김, 『현대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53쪽.

이 불어와도 치올리고/ 짐승떼 몰려와도 치올리고/ 하늘땅 뒤바뀌어도
치올려/ 덧덮여 깃눌리는 오늘의 어둠/ 어둠의 그 중심에/ 기 다시 꽃아
/ 깃발을 내려서는 안되리./ 불을 질르면서 가야 하리.”에 나타나는 목숨
을 건 혁명의지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유토피아 사회상을 달성하기 위
한 인간적 노력의 표상물로 등장하는 ‘기’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건설
하겠다는 구세군의 혁명성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그의 ‘기’는 과거적인
것이면서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이상향을 포괄하는 총체적 상징
물이 된다. ‘이상향을 향한 강력한 지향성’으로서의 기는 중기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징물⁵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깃발의 이미지는 「천마(天馬)」에서도 지속되어 유신 독재체제
를 극복하는 이상적 사회상의 구현에도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 시에서
는 보다 기독교적 상징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미지로 등장하여 하나
님 나라의 의미를 만들고 있다. 즉 “새벽이 밤을/ 빛이 그 어둠을 밟고
오는/ 오대주 일제히 푸른 산이 일어서고/ 바다들이 희디 하얀 깃발 새
로 든다.”에서 보이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푸른 산’과 ‘바다’ 이미지가 등
장하고, 거기에 “그 절망도 죽음도 다 죽음 속에 장사하고/ 유랑히 쏟아
지는 하늘 나라 말씀/ 하늘과 땅 일제히 사랑의 뉘 탄다.”에서 보듯 새로
운 ‘하늘과 땅’의 열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보인다. 성경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
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⁶⁰⁾라
고 표현되고 있는데, 박두진이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신이 열어주는 신국이
라 할지라도 박두진의 의식상 이 이상적 사회상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달성되는, 곧 지상에 구축되는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회라는 점을 명확히

59) 김응교, 앞의 책, 169쪽.

60) 성서원 편집부, 『베스트 성경』, 성서원, 2025, 1047쪽.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적 유토피아는 인간이 보다 더 행복하게 되고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상황을 형성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며 그의 세계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다.⁶¹⁾ 시인 스스로 “세계주의, 인류애, 평화주의가 초기 청년 시대의 내 사상의 모토였고, 소박하던 이러한 관념을 체계화시켜 준 것이 깊고 거대한 그리스도교적 인류애, 십자가 종교가 표방 추구하는 세계와 우주, 인류 역사의 천국적 완성의 사상이었다.”⁶²⁾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경우 매우 적절한 발언이 된다. 이를 ‘성육신적 유토피아’라 불러도 될 것이다. 성육신적 유토피아란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삶의 한계 속에서 극복하면서 돌파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한 근원적인 변혁과 희생과 아픔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순교자적으로 감내하게 될 때 하늘의 것이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변형된다는 이상향”⁶³⁾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기독교적 유토피아 의식이 박두진 시의 정신이자 주제로 일관된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박두진 시의 유토피아 의식의 양상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의 문제점을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

61) G. 프리드리히,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 G. 프리드리히/H. 쾰/김균진, 『유토피아니즘과 기독교』, 종로서적, 1986, 29쪽.

62)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현』, 일조각, 1995, 107쪽.

63) 김덕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앞의 책, 123쪽.

역시 기독교적 메시아사상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었지만, 작품에 나타난 이상적 사회상은 단순히 신에 의해 주어지는 낙원의 이미지보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지상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이다.

박두진의 작품의 특성을 시기적으로 요약하면 먼저, 일제 강점기의 시들은 현실의 부정성을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민족의 현실을 ‘처참한 밤’, ‘황폐한 땅’ 등의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침략자를 ‘뱀’ 등의 악한 짐승의 이미지로 우의화하여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회상은 이사의 천국 이미지를 빌려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청산’의 이미지로 대안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시기는 일제의 힘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신의 섭리와 심판에 의해 진행되는 유토피아 사회상을 그려 보여주는 듯하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식은 당대 사회의 모순을 인간들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해방 후 4·19혁명 시대, 6, 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들은 당대 사회의 부정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함을 보여준다. 4·19혁명 시기의 시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악’, ‘사회악’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비판하였고,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는 자유가 억압된 모습을 ‘식민지 노예’, ‘봉쇄의 입’, ‘막힌 귀’, ‘뭍힌 자유’ 등의 이미지로 제시하여 당대 현실 사회의 억압적 현실의 문제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대응한 유토피아 사회상의 모습으로 4·19혁명과 관련된 시에서는 당시 민중에 의해 선택될 ‘절대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는데, 절대라는 말이 가지는 함의에 따라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신국의 이미지가 배어들어 있어 기독교적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을 보여준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 대응한 유토피아 사회상의 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제시됨으로써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먼 채 인간의 노력에 의해 건설될 이상적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박두진 시의 유토피아 의식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부정
 성에 통렬한 비판의식을 전제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상을
 기독교적 메시아사상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두진은
 기독교 유토피아 의식을 자신의 삶과 세계에 견지하고 있으나 당대 현
 실에 대한 인간의 참여와 노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인간의 노력
 으로 지상에 건설될 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을 그의 생애 내내 추구
 하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곽효환, 「청록집에 나타난 이상공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34, 한국근대문학회, 2016, 115-139쪽.
- 구춘서, 「한국적 상황에서 마지막에 대한 논의와 유토피아」,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 권성훈, 「한국 기독교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 『종교연구』 66, 한국종교학회, 2012.3, 221-248쪽.
- 김균진, 「미래를 지향하는 유토피아 정신」, 『기독교 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
- 김택기,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에서의 유토피아적 특성」,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 김동리, 「자연의 발견」, 김동리 외, 『청록집 · 기타』, 현암사, 1968.
- 김승희, 「청록집과 탈식민화의 저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12, 159-186쪽.
- 김용복, 『한국민중과 기독교』, 형성사, 1981.
- 김응교, 「시적 현실주의의 강화 -1950년대 박두진 시」, 한국문학연구회,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_____,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 김의수, 「서양 현대철학에서 유토피아 논쟁과 미래사회」,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 김지윤, 「박두진 전후 시의 시간성과 현실인식」, 『한국시학회 제37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시학회, 2016.5.21.
- 김진희, 「청록집에 나타난 ‘자연’과 정전화 과정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10, 7-41쪽.
-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망, 2012.
- 박두진, 『시와 사랑』, 신흥출판사, 1960.

- _____,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 _____, 『박두진 전집 시 2』, 범조사, 1982.
- _____, 『박두진 전집 시 3』, 범조사, 1983.
- _____, 『박두진 전집 시 6』, 범조사, 1984.
- _____, 『박두진 전집 시 7』, 범조사, 1984.
- _____,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2.
- _____,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95.
- _____,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 신원문화사, 1996.
- _____, 『박두진 문학 정신 7』, 신원문화사, 1996.
- 박설호, 「블로흐 사상의 이해를 위해」,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희망의 원리』, 솔, 1993.
- 박이도,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종로서적, 1987.
- 박정례, 「박두진 시의 종교성에 대하여」, 『어문연구』 6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0, 298쪽.
- 박철휘, 『서정과 인식』, 이우출판사, 1983.
- 박철휘 편, 『박두진』, 서강대 출판부, 1996.
- 백승란, 「박두진의 초기시 연구」, 『비평문학』 22, 한국비평문학회, 2006.5, 7-35쪽.
- 손진은, 「청록집과 박두진의 시」, 『국제언어문학』 14, 국제언어문학회, 2006.12, 245-258쪽.
- 신동욱, 「해와 삶의 原理」, 『박두진 전집 시 1』, 범조사, 1982.
- 유성호, 「윤리와 실존으로서의 종교의식」, 『현대문학의 연구』 3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2, 97-122쪽.
- 유시욱, 「두 가지 성취욕의 궤적」, 박철휘 편, 『박두진』, 서강대 출판부, 1996.
- 이유식, 「박두진론」, 『현대문학』, 1965. 11.
- 이종록, 「엑소더스와 유토피아」,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임영주, 『박두진의 생애와 문학』, 국학자료원, 2003.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임희모,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 메시아운동」,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정지용, 「시선 후」, 『문장』, 1940.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정지창 외,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조동구, 「박두진 시의 구성 원리와 변모 양상」, 『문예운동』, 2015.9, 72-86쪽.

주경철, 『유토피아 -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최승호, 「청록집에 나타난 생명시학과 근대성 비판」, 『한국시학연구』 2, 한국시학회, 1999.11, 291-337쪽.

최현덕, 「서양에 있어서의 유토피아 사상의 역사」,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생각의 나무, 2002

G. 프리드리히,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 G. 프리드리히/H. 쿡/김균진, 『유토피아니즘과 기독교』, 종로서적, 1986.

라이먼 타워 사전트,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문학동네, 2018.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옮김, 『희망의 원리』, 술, 1993.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 옮김,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72.

다니엘 게랭, 하기락 옮김, 『현대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성서원 편집부, 『베스트 성경』. 성서원, 2025.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Idea of Utopia in Park, Du-Jin's Poems

Kim, Kyung-Bok*

The starting point of Park Du-Jin's poems lies in the concern in the eternity and life of nature. Nature in his poems, especially nature represents the symbol of stability and abundance. However, the characteristic of Park, Du-Jin's poems is to have a certain meaning in relation to the situations of the times. In other words, the mountai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the meaning of utopia contrasted to the dark reality at that time.

Many writers point out that the characteristic of his poems is the idea of utopia. It seems to be reasonable to regard the characteristic of his poems as the idea of utopia in that they present the Christian idea of utopia where all animals and plants live peacefully with the mountain as its background.

However, the characteristic of his poems cannot be simply regarded as the idea of utopia in that they continuously expressed the figures of an ideal society in relation to the reality at that time. The consistent idea in his poems is the idea of utopia to construct the ideal society figure with human's own power in that his poems sought for the righteous and peaceful life of the people at that time. In other words, the idea is not the idea of religious salvation but the one of ideal

* Kyungnam University.

society figure to criticize against the reality and overcome it.

Therefore the poems of Park, Du-Jin may be regarded as the symbol to establish an ideal society figure with the subject of nature based on Christian ideology. The essence of this symbol does not lie in the religious salvation but the idea of utopia to reform the reality. Thus, the characteristic of the poems of Park, Du-Jin is to express the idea of utopia which is the representation of Christian idea of utopia reflecting his religious background.

Kew Words : Park, Du-Jin, Utopia, Messiah Thought, Idea of utopia, Christian utopia Consciousness.

■ 논문접수 : 2025년 7월 29일

■ 심사완료 : 2025년 8월 14일

■ 게재확정 : 2025년 8월 14일

